

# 17-18세기 한일간의 문화교류\*

李 秀 雄

건국대학교

李 成 奎

인하대학교

##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LEE Soo Woong

Konkuk University

LEE Sung Kyu

Inha University

### ABSTRACT

It is a fact that during 200 years of this study, Korea and Japan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hip and had lively cultural exchanges. However, the relative positions of two countries underwent a dramatic change. Chosun dynasty, which established its own unique culture around the 15th century, received fatal damage by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which, together with the failure of digesting western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marked the starting point for the dynasty to fall down as the colony of Japan after 300 years.

On the other hand, the war between Korea and Japan, called 'Imjinwaeran', became the stepping stone for Japan to have cultural jumps. Ending long period of ceaseless wars, Japan experienced continuous escalation of culture and appeared as 'a new civilized country' on the scene of Asia. After the war of 7 years, enormous number of Korean and cultural estates were sent to Japan and transplanted there. The sending of Korean goodwill mission of about 450 members to Japan of total 11 times, which continued for 200 years, was the prerequisite process for Japan to absorb completely the rest of Korean cultural elements.

Only when Japan could possess its own superior culture which wa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science, technology, ideology and scholarship that then stand as 'counterparts' of western ones, Japan could digest successfully the western modern science and civilization.

Key Words: Cultural Exchange, Traditional Science, Western Modern Science, Counterpart, Confucius Ideology

---

\* 이 연구는 1998년 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1. 서론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후기와 일본의 에도幕府시대(1603-1868)는 크게 겹친다. 그 속에서 17-18세기 200년간이라는 시대는 한일간의 교류의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시기이며, 동시에 일본의 문화—과학, 기술, 사상, 학문 등—가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시기이다. 이 때 한일간에는 대등하고 활발한 상호교류가 있었다.<sup>1)</sup> 이 시기의 일본의 폭발적인 성장은 일본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현상이며, 한 영문서적의 예를 들면 “지적 폭발”(Intellectual Outburst)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sup>2)</sup> 이 책의 저자들은 이것을 ‘중국문화의 물결’(Chinese Cultural Wave)이 밀려온 영향으로서 말한다. 사실 그러한가?

필자가 보기에 이 저서에는 왜 그리고 어떻게 당시 200년 가까운 기간을 통해서 중국 문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본에 밀어닥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동아시아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중국문화의 일본으로의 노도 같은 물결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소제목 ‘National Isolation and the Peak of Chinese Cultural Wave II: 1639-1720’은 이때 이루어진 온갖 성과—儒學, 의학, 천문학, 도자기, 曆算學, 和算 등—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의 내용을 보면, 왜 하필 일본의 쇠국시대에 문화적인 성장이 가능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sup>3)</sup>

우리는 에도막부의 쇠국시대에 일본이 정식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는 조선뿐이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의 한일간의 교류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 기술, 사상, 학문의 측면에서 보다 새롭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도 하다. 조선후기의 한일관계사 연구에는 아직 미답지가 크게 남아있으며, 여기에 과학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대로 조선은 일본에게 고대문화의 형성에만 영향을 주었는가? 특히 고대를 통해서 일본이 자랑하는 천황가가 조선으로부터의 渡來集團이라는 것은 한일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공공연히 주장하는 역사적인 논쟁의 주제이다. 그러나 조선문화의 일본에의 영향은 근대에도 엄연히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지닐까?

1) 일본의 한국학자 하타다(旗田たかし)는 1992년 4월 2일 『동아일보』에 실린 재일 사학자 李進熙와의 대담에서 “에도시대 260년간의 일본과 조선 사이의 선린우호 관계는 세계역사상 예가 드문 오랜 친선관계”라고 말했다.

2) Masayoshi Sugimoto & David L. Swain, *Science and Culture in Traditional Japan A.D. 600~1854* (Cambridge: MIT Press, 1978), pp. 225-290.

3) 같은 책, pp. 225-233.

우리는 흔히 한국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일본에 전해준 문화를 말한다. 한편 우리는 일본에 당한 쓰라린 식민지 경험을 말한다. 또한 현재 재일 한국인에게서 상징되는 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멸시와 차별을 불평한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문화의 선진 시혜자가 피압박자로 전락하는 이러한 양국간 위상의 역전현상이 일어났는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해서도 답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임진·정유왜란 이후 약 2세기 간을 통해서 일본이 이루게 되는 과학, 기술, 사상, 학문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취의 실상을 조선과 연관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과의 과학기술의 교류를 다룸에 있어 전통적 동양의 것과 새로이 전래되기 시작한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로 분명히 나누어서 말하고자 한다. 이미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서양과학 수용에서 나타나는 격차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전통적인 조선의 학문, 사상, 과학, 기술의 일본 전파의 실태를 다루고, 이것을 다시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서구의 근대 과학기술과 연관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이 전통문화 전반에서 일본에게 추월 당하고 또 서구적 근대화에 있어서 일본에 뒤지는 정확한 시기와 원인들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 2. 임진·정유왜란과 조선문화의 일본 전파

### 1) 강제 송환된 살아있는 문화재

전쟁 중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포로로 일본에 끌려갔던 바, 이는 문화재의 약탈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살아있는 삶의 방식, 곧 문화를 그대로 약탈한 의미를 지닌다. 7년간의 전쟁에서 일본에 잡혀간 포로는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10여만 정도이며, 이에 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자는 일본 전국적으로 보아도 7,500명에 불과하다 한다.<sup>4)</sup> 그러나 사쯔마번(薩摩藩)에 강제 이주된 조선인만도 30,700명에 달한다고 하므로,<sup>5)</sup> 필자가 보는 피랍 조선인의 숫자는 10만을 훨씬 상회한다. 당시 일본에는 280여의 번이 존재했는데, 비록 사쯔마가 큰 번이었고 또한 주로 큐슈(九州)지역으로 많은 포로가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모든 다이묘(大名)들이 다투

4) 이 숫자에 대해서는 金泰俊, 『壬辰亂과 朝鮮文化의 東漸』 한국연구총서 33(한국연구원, 1977), 25, 43쪽을 참조.

5) 이 숫자에 대해서는 三宅英利(김세민 外 옮김), 『조선통신사와 일본』(지성의 샘, 1996), 72쪽; 김태준, 앞의 책, 25쪽을 참조.

어서 조선인을 데려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0여만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일 수도 있다.<sup>6)</sup> 임란을 전후한 조선의 인구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임란의 전해인 1591년에는 14,095,000명이었던 것이, 전쟁이 끝난 다음의 1599년에는 11,740,000명으로 줄고 있는 참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up>7)</sup> 이 전쟁으로 사라진 2,355,000명 중에 포로가 10여만에 불과했겠는가? 히데요시(豊臣秀吉)와 왜장들이 가능한 대로 많은 조선인을 포로로 데려가고자 하였음은 일인 학자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다.<sup>8)</sup>

이들 피랍 조선인의 정확한 숫자와 이들의 일본문화에의 기여는 앞으로 보다 연구되어 적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특히 압도적으로 많은 조선인이 강제 송환되었던 사쓰마번에서 조선 도래인의 역할이 컸음에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들어본다. 뒤에 사쓰마번은 명치유신 시에 초슈번(長州藩)과 함께 二大雄藩으로서 활약하였다. 명치유신 때에 활약한 많은 일본의 인물과 지사들이 특히 사쓰마번에서 압도적으로 다수 배출된 것은 일본사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요시(芳即正)의 탁월한 논문이 밝히는 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쓰마번의 고유한 교육제도에서 찾아진다.<sup>9)</sup> 즉 일본의 모든 번이 뒤에 '藩校'라는 교육기관을 가지게 되나, 유독 사쓰마번은 그 이전에 '郷中'이라 불리는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사족의 자제들을 가르쳤는데, 여기서의 교육이 명치유신의 원동력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향중은 그 제도나 교육내용으로 보아 우리의 향교 및 서원과 크게 흡사하다. 다만 무예를 가르치는 것이 다를 뿐 한학과 유학을 주로 가르쳤다는 공통점이 큰 것이다. 바로 이 향중을 최초로 세운 것은 정유왜란이 끝나고 조선에서 돌아온 사쓰마의 번주 시마즈(島津義弘)에 의해서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악명을 떨치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시마즈는 '維新公'이라 불리면서 사쓰마번의 역사에서 크게 칭송되고 있다.<sup>10)</sup> 이 사쓰마번에서만 고유하게 볼 수 있는 사족의 자제 교육기관인 향중은 처음에는 5개 정도였으며 막부말기에는 22개로 늘고 있다.

이 향중이 바로 시마즈가 귀국해서 즉시 가능했던 것은 왜일까? 필자는 그 해답을 이곳에 끌려온 30,700명이나 되는 조선인의 숫자에서 찾는다. 이 중에 글을 아는 사람을 5%만 잡아도 그 숫자는 150명인 것이다. 바로 임란으로 끌려온 조선의 선비들에 의해서 사쓰마번에서의 본격적인 교육이 제도적으로 비로소 가능하였다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薩摩藩の子弟教育"

6) 참고로 에도시대의 일본 인구는 초기의 1,800만 명에서 후기의 3,000만 명으로 증가를 보인다.

7) 權泰煥·愼鏞廈,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試論", 『東亞文化』 제14집(1977. 12), 325-326쪽.

8) 예로서 內藤雋輔, 『文錄・慶長に於ける被擄人の研究』(東京大出版部, 1976), p. 11.

9) 芳即正, "薩摩藩の子弟教育", 『歴史讀本』(1984 新年號), pp. 120-127.

10) 가고시마 시내에는 말을 탄 커다란 시마즈의 웅장한 동상이 있는데, 사쓰마번의 역대 번주 중에는 그의 것이 유일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의 저자 요시는 왜 전쟁 직후에 하필이면 이같은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정비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시마즈가 전쟁으로 흥흥해진 사쓰마번의 민심을 교육으로 다스리려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설립이 이같이 한 지배자의 결심만으로 가능해지는가?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도처에서 조선 선비에 의해 본격적으로 한학과 유학이 가르쳐지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사례를 두 가지 여기서 보기로 하자. 사쓰마번에서 조선의 선비에 의해서 교육이 크게 부흥하였다는 직접적인 사료는 현재로서는 없으나, 다른 번의 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조선의 포로가 일본 각지에서 그 지역의 학문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꽤 있다.<sup>11)</sup>

기슈번(紀州藩, 오늘날의 와카야마市 일대)으로 송환된 조선 선비 이진영(李眞榮)은 그곳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주자학을 가르쳐서, '와카야마 일대 유학의 시조'로 알려지게 되었다. 번주의 侍講이 되었고, 이어서 아들 이매계(李梅溪, 1617-82)가 만든 '父母狀'이라는 교훈문은 명치유신 때까지 번의 교육지침서였으며, 오늘날에도 이 일대의 각급 학교에서 소개되고 있다고 한다. 매계는 『徳川創業記考異』 10책을 막부에 바쳐서 50석의 증가과 매원촌에 別墅를 받아서 필명을 날렸다. 자손 대대로 이 가문이 번주의 시장이 되었으며, 자손이 1930년대까지도 10대로 이어서 이씨 성을 가지고 오사카에 살고 있다고 한다.<sup>12)</sup> 와카야마시의 海善寺에는 '朝鮮國李氏眞榮之墓'라는 무려 7척이 넘는 돌비석을 위시해서 묘비를 비롯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홍호연(洪浩然)은 진주 선비로서 1593년 12세 때 왜장 나베시마(鍋島直茂)에게 잡혀갔으나 그의 아들 대에 이르기까지 시장으로서 섬김을 받았다. 교토의 五山에 유학한 후, 학자로서의 일생을 사가(佐賀)에서 보냈으며, 사가현(佐賀縣) 유학의 開祖로서 기록되고 있다. 그에 대한 여러 기록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으며<sup>13)</sup>, 그의 후손은 현금에도 홍씨 성을 그대로 지니고 살고 있으며 일본의 명가 사족으로서의 역사를 만들고 살았던 것이다.

11) 『동아일보』는 1992년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특집 “壬亂 400년”을 통해 임란의 후예들이 일본에서 활약한 실상을 10여 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다루었다. 또 하나의 예로서 김성한, 『歷史紀行: 일본 속의 한국』 (사회발전연구소, 1985)을 참조.

12) 松田甲, 『日鮮史話』 第3編(中央公論社, 1937), pp. 14-15; 더욱 자세한 것은 『동아일보』 특집 “壬亂 400년”(1992년 4월 2일) 참조.

13) 『洪浩然家系圖』; 古賀精里 撰, 『洪浩然傳』 등. 홍가의菩提寺인 阿彌陀寺는 佐賀市 東郊 舊東川 副村 木原에 있고 여기에 그의 묘비가 있다. 자세한 것은 『동아일보』 1992년 4월 30일자 참조.

## 2) 조선 서적의 일본유입<sup>14)</sup>과 학문의 진흥

일본은 戰國시대(1467-1568)를 통해서 각지에는 군웅이 할거하였고, 전쟁으로 날이 지새고 있었다. 이 시기의 일본은 문화적인 암흑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지식의 전수는 山門의 일부 승려 계층에 의하여 명맥을 이어 왔다고 하는 것은 일인들 자신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이다.<sup>15)</sup> 일본에서 학문이 크게 융성하고 교육이 흥하기 시작하는 것은 도꾸가와(德川)막부가 일으킨 文治정책 이후부터이다.<sup>16)</sup> 바로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취한 정책은 조선에서 유입된 서적의 정리와 보호라는 문헌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임진란 때 왜군의 무장들은 대동했던 학승들로 하여금 이 문적들의 船載에 전념케 했다. 히데요시가 조선의 서적과 활자 및 문화재를 계획적으로 반출시킬 것을 부하에게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일본이 약탈한 조선 문적은 그 양에 있어서 조선 문적의 이동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한데, 예를 들면 임진란 이전에 출판된 조선 의학서적의 거의가 일본에 가 있다고 할 정도이다.<sup>17)</sup> 유명한 '養安院藏書'는 임란 때 약탈한 조선의 의서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도꾸가와막부 文教의 시조 하야시(林道春, 1583-1657)가 1604년에 작성한 독서 목록은 조선 서책이 그 근간이 되고 있다. 총 440부 수천 책의 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들이 대부분 임진란에 약탈된 전리품이었다.<sup>18)</sup> 여기서 우리는 에도 이전에 일본에는 인쇄술이 없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데에는 서적이 중요하다. 임란 이후 조선 문적의 일본으로의 이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로부터 유학이 발흥하고 전국적으로 문고가 확충되고 서원이 생겨났으며 학문이 보급되었던 것이다.

일본 내에서의 문고 설립과 조선 서적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스루가(駿河)문고를 예로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문고는 1602년에 이에야스의 명으로 세워졌는데, 임란 때 약탈한 조선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장서의 수는 약 800부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위시해서 그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에도시대의 문고들이 다시 도서관의 원류가 되었음은 일인 학자 오노(小野)의 저서가 자세히 밝히고 있다.<sup>19)</sup>

14) 이에 대해서는 金泰俊, 앞의 책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 저서는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문화의 진수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거의 송두리 채 일본에 빼앗겨진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5) 예로서 小野則秋, 『日本圖書館史』(玄玄社, 1973)는 이 점을 강조한다.

16) 家永三郎, 『日本文化史』第2版, 岩波新書 187(岩波書店, 1982), p. 189를 위시해서 대개의 일본사 서술이 그러하다.

17) 김태준, 앞의 책, 142쪽. 이것은 『朝鮮醫學史』를 쓴 유명한 일인 학자 미끼(三木榮)의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18) 같은 책, 197쪽.

에도시대에는 전국에 약 280여 번이 있었는데 이들 藩校를 중심으로 한 문고들은 이 시대 교육 열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에도 말기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400만여의 데라고야(寺小屋)와 사숙 등이 문고와 연관하여 생겨나서 서민의 교육에도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임란 이전 조선의 서적은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대부분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필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만큼 임란 후 조선은 껍데기만 남는 격이 되고, 일본은 조선의 약탈품으로 충만하여, 향후 학문 융성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 3) 근세 유학의 시작과 사상의 확립

근세 일본사회의 새로운 지도정신으로서 유학을 보자. 일본에 주자학이 전래된 것은 가마쿠라(鎌倉)시대(1192-1333) 초기라 하나 유명무실하였을 뿐이다. 히데요시 이후에 전국의 통일을 완성한 도쿠가와막부로서는 장군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봉건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유교적 명분주의와 윤리를 가장 적당한 사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막번체제의 완성은 수세기에 걸쳐 성장한 일본의 봉건제도가 처음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세계관이나 일상의 윤리에 있어서도 당연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이미 불교나 신도 등의 사상체계가 있었지만, 막부의 장군과 전국의 다이묘를 정점으로 하는 세분화된 家臣團의 신분적 구성과 사족의 농공상 삼민에 대한 절대적인 우월을 골격으로 하는 막번체제의 사회 구성을 사상적으로 강하게 기초 놓기 위해서는 유교의 명분론이나 五倫五常의 윤리밖에는 없었다. 전국시대를 통해서 만연하였던 하극상의 풍조를 부정하며, 인과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헌신의 도덕도 유교가 제공하였다. 주자학은 봉건사회의 지배자에게 매우 편리한 사상이었으니, 군신, 부자, 부부 모든 상하존비에 따라서, 하는 상에 따를 적에 비로소 친하는 태평이라는 주자학의 사회철학은 그대로 봉건적 지배자의 정치적 요구에 답하는 내용을 지닌 것이다.<sup>19)</sup> 여기서 막부 지배자들의 정치철학은 유교의 여러 원리 중에서도 주로 충성에 관련되어 있었음은 중시할 가치가 있다.

유교는 이 때 에도시대에 라이벌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두 사상, 기독교와 불교를 억제하고 이 시대의 지배사상이 되었다는 점을 결코 경시할 수 없다. 막부 초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하야시는 일찍이 유교로 기독교를 공격했다. 유교와 기독교는 일본에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장군 이에야스가 1635년에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 금지라는 쇄국령을 내렸던 주 원인의 하나는 기독교로 인

19) 小野則秋, 앞의 책, p. 103.

20) 에도시대의 유학에 대해서는 北島正元, 『江戸時代』 岩波新書 D 104(岩波書店, 1958), pp. 62-64 참조.

한 일본의 사상적 위기를 벗어나려 했던 데에 있었다. 그 일환으로 기독교의 탄압이 행해지고 순교자가 이후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 도꾸가와막부의 '기독교 문화의 일소'라는 노력은 유교사상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하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주자학의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은 기독교의 세계관이나 윤리와 대결해서 막부의 금교에 유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편 하야시는 철저한 排佛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 서적과, 특히 이퇴계의 저서에 나타나는 배불사상의 영향이었음은 일본학자가 잘 밝히고 있다.<sup>21)</sup> 이같이 일본에서 유교의 또 하나의 사명은 불교가 보여주는 강한 특징인 현세 및 인륜의 부정과 싸우는 것이었다.

후지와라(藤原惺窩, 1561-1619)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에도 260년을 지배하게 되는 일본 근세 유학의 開祖로 불리는 인물이다. 여기서 임진왜란의 被捕학자 강항(姜沆)과<sup>22)</sup> 후지와라의 관계를 보자. 왜란 때 1597년 피랍되었으며 4년만에 귀국하여 뒤에 『看羊錄』을 써서 남긴 것으로 유명한 유학자 강항은 후지와라에게 나이가 6살이나 연상인 그로부터 師友로 대접받으며 신유학을 가르쳤다.

둘이 한 대표적인 사업은 주자학설에 따른 고전 『四書五經』의 和訓本을 만든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사서와 오경을 필사하였다. 1599년에 완성되고 강항이 발문 「五經跋」을 썼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소위 『강항회초십칠종』의 寫書가 완성을 본다. 이 『강항회초십칠종』의 내용을 보면 사서와 오경의 9종에다가 성리학서 7종과 마지막으로, 기록으로는 확인되나 현전하지 않는 『황극경세서』이다. 이러한 필사는 에도 유교문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여기서 일본 신유학의 싹은 트고 있는 것이다.

『간양록』에 따르면, 후지와라는 신유학의 寫書 외에도 강항에게서 춘추석전 등 주자학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묻고 배웠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孔子祭 등 예의를 실습하기 위해서 후지와라는 一室을 준비하였고, 여기에 여러 문생들을 시켜 釋奠의 예를 몸소 익혔던 것이다. 이 의식은 그의 문인들에 의해서 후대로 이어지는데, 에도 유교문화의 여명을 알리는 행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때에 제복제관은 모두 강항에 의해서 지도되어 제조되었고, 나아가서 1600년 9월 이에야스 앞에 나타난 후지와라가 儒服인 深衣道服을 착용하였음은 유명한 사실이다.<sup>23)</sup>

후지와라는 교토로 가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가르쳤다. 그 중에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하야시가 있었는데, 스승의 추천으로 도꾸가와 정부의 중요 문서를 다루고 문교정책을 총괄하게 되었

21) 家永三郎, 앞의 책, p. 182.

22) 일본에서 강항의 행적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로서 김성한, 앞의 책, 177-191쪽을 참조.

23) 奈良本辰也, 『日本の藩校』(淡交社, 1970), p. 51.

다<sup>24)</sup>. 1630년 에도의 중심가 우에노(上野)에 땅을 하사 받아서 서원과 문고를 세우고 孔子사당을 지어서 釋尊祭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석존제는 그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로써 에도 유교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sup>25)</sup>

에도시대의 주자학이 조선의 절대적인 영향 밑에서 발전하였다는 것은 이퇴계가 일본에서 크게 尊崇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의 저서는 에도 260년을 통하여 46권이 일본에서 간행되어 읽혔다고 한다. 일찍이 1719년의 조선통신사의 제술관 신유한은 일본에서의 퇴계숭상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26)</sup> “우리나라 여러 명현의 문집 중에서 왜인이 가장 높이고 숭상하는 것은 『退溪集』만한 것이 없다. 곧 집집마다 외고 모든 선비가 필담으로 물을 때 반드시 퇴계집을 첫째로 삼았다.” 이미 에도 초기의 대학자 하야시가 이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음은 1636년의 통신사행 김세렴(金世濂)의 『海槎錄』에도 나타나지만, 이러한 퇴계의 영향은 명치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명치시대에 만들어진, 일본황실이 반포한 ‘교육칙어’는 일본 국민의 교육과 도덕심에 큰 영향을 행사했는데, 이의 기초자인 모토다(元田永孚)는 “程朱의 학문이 조선의 이퇴계에게 전해졌고, 일본의 退野는 그 퇴계의 가르침을 읽고 깨달았다. 나는 退野의 학을 이어 받아서 이를 황제에게 바친다”고 하였던 것이다.<sup>27)</sup> 퇴계는 ‘주자 이후의 오직 一人’이라 하여 일본에서 숭상되었다.

후기 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끼쳤고 조선 근대화에 부정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유교이지만, 일본에서의 주자학은 근대 일본을 세우는 데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함으로써 크게 긍정적이었다. 후기 조선에서는 유학이 가족주의적이며 관혼상제 등 禮樂의 분야에서 특히 중시되었던 것과 달리 일본의 것은 철학적이었으며 에도 초기부터 정치원리로서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幕藩체제 유지와 함께, 나아가서는 존왕양이 등 명치통일에 필요한 사상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중대한 역사적 공헌은 유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유교적 정치이념인 천명사상은, 충효사상 및 왕도정치의 개념과 함께 천황제로의 복귀를 논하는 유학자로서의 교양을 갖춘 사족들에게 사상적인 지주였다. 예로서 막말의 大儒 요시다(吉田松陰, 1830-1859)는 주자학의 명분론을 이용하여 일본에서의 정치변혁의 이론적 근거로 전환시켰다. 그는 1859년에 맹자의 易姓혁명사상을 들면서 유교에서의 ‘天’의 개념을 천황으로 바꾸어서 막부 타도의 논리

24) 그의 손자 때부터 하야시家は 대대로 덕천막부의 최고학부인 昌平校(東京대학의 전신)의 大學頭에 임명되었다.

25) 奈良本辰也, 앞의 책, p. 51.

26) 『海遊錄』 11월 4일자 일기. 신유한과 『海遊錄』에 대해서는 5절에서 더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27) 김태준, 앞의 책, 285쪽.

적 근거를 제시했다.<sup>28)</sup>

1890년(명치 23년)에 일본 황실이 발표한 ‘교육칙어’는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의 교육 방침이었다. 이것이 사실상 仁義忠孝를 강조하는 유교적 윤리를 근거로 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로서, 명치 이후 일본의 놀라운 약진이 교육의 성공적인 보급과 나아가서는 교육칙어로서 국민의 사상을 통일한 것에 있다고 서양의 학자들까지도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sup>29)</sup>

여기서 의미 깊은 현상을 하나 보자. 저명한 과학사가인 동경대학의 무라카미(村上陽一郎)교수는 그의 일본인론에서 일본인의 원형론을 전개하였다.<sup>30)</sup> 그는 여기서 유교적인 일본인을 일본의 원형이라 하여 서양의 기독교 및 서양문명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일본인상은 겨우 에도시대에 그 토대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것이 조선이었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이다.

근세 일본의 사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주자학은 그 기초부터 조선에서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 유교사상은 근대 일본의 사상계를 제패하였던 것이다.<sup>31)</sup> 일본에서 근대화의 기수로 활약한 ‘志士’들은 하나같이 유학자들이었고, 서양의 과학기술 및 문물을 앞장서서 배웠던 蘭學者도 상당수가 유학자들이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 4) 도자기<sup>32)</sup>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이 그들의 학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일본사회에서 누리게 되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이후 한국인이 일본문화 향상에 기여한 높은 공로에 대하여 고찰함에 있어서 도자기와 도공의 예는 가장 잘 알려진 적합한 것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일명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는데, 이는 조선에 상륙한 일본의 장군들이 다투어서 도공들을 일차적으로 강제로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sup>33)</sup> 조선의 한 도공집단의 이상

28) 요시다 등의 皇國사상에 대해서는 榮澤幸二, 『大東亞共榮圈の思想』(講談社, 1995), pp. 14-25를 참조.

29) 김태준, 앞의 책, 285쪽.

30) 村上陽一郎, 『日本人と近代科學』(新曜社, 1980), p. 189.

31) 家永三郎, 앞의 책, p. 181.

32) 도자기는 고도의 화력에 의한 계산된 화학변화라는 과학과 오랜 경험의 축적이라는 기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혼을 요하는 예술의 삼위일체의 결과이다. 당시의 도공은 흙과 불이라는 단순한 자연물로부터 보석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로서 그 성과물은 대단히 귀중한 문화재였다.

33) 필자가 일인 학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의 영주들을 복속시킨 후 그들을 조선침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자기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전국의 번주(다이묘라고도 함)들을 차례로 문안케 하면서 그 때마다 조선의 磁器를 찬찬으로 내놓았고, 이에 모든 번주들이 그 출처를 물으면서 크게 감탄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일반적으로 원시적인 토기나 목기, 칠기를 사용하는 수준에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자기가 서민생활에서도 널리 유통되고 있는 정도

한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보면, 1597년 전라도 남원성이 함락될 때 사쓰마번의 藩主 시마즈에 의해 사로잡힌 포로 중에는 나에시로가와(苗代川)에 정착하게 된 43명의 무리가 있었다. 이들에 의해 사쓰마번은 사쓰마야끼라는 우수한 도자기를 만들어서 일본 전국에 팔으로써 엄청난 부를 얻는다. 이들은 모두가 번주의 명에 의해 사무라이, 즉 사족의 신분을 얻는데 이는 당시의 조선인이 궁지와 자질에서 '토착인'에 비해 크게 높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sup>34)</sup> 이들 조선인은 명치유신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가 한국의 풍습과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본의 무사로서 살아왔다.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와 1873년 오스트레일리아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사쓰마야끼는 바로 여기 나에시로가와(현재의 日置郡 東市來町 美山)의 도공들의 작품이다. 일본제국 최후의 외무대신 도오고(東郷武徳)는 이 마을 朴平意의 자손이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쓰마야끼의 宗家 14대 심수관(沈壽官)도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다.<sup>35)</sup>

사쓰마번은 조선의 도공들을 적극적으로 보호, 도자기 산업을 크게 일으켜서 사쓰마번의 경제적 융성을 이루었으니, 이로써 명치유신에 이르기까지 사쓰마번의 경제력이 타번을 앞서는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임란 후의 일본 도자기 산업의 부흥은 일본에 있어서 경제적 번영과 함께 문화적 흥기라는 의미를 지닌다.<sup>36)</sup>

한편, 조선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도공의 후속세대가 끊겨 한동안 자기를 구워내지 못하고 투박한 토기를 사용하는 실정이 되었다. 도자기 문화의 일본 이식은 임란 때 조선문화의 정수가 일본으로 옮겨진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 5) 기타: 인쇄술, 의학, 천문역산학, 제지술 등

이외에 조선이 세계 최초로 자랑하는 활판 인쇄술도 임란 때에 일본으로 유입된다. 조선에 비해 일본은 근 400년이나 뒤져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것도 조선에서 탈취한 동활자 및 인쇄기구 일체와 기술자에 의해 크게 힘입었다.<sup>37)</sup> 한편 조선에서는 인쇄술에 관계된 유물이 임진왜란 이

었다. 조선에 가면 그같이 고급 자기그릇이 길에 깔렸을 정도로 흔하다는 히데요시의 말에 諸將의 침략 의욕이 더욱 고취되었음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34) 일본의 사무라이, 즉 사족은 전인구의 약 6% 정도로서 조선의 양반보다도 권위가 높아 명치유신 때까지 평민에 대한 참살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신 후 제도적인 특권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2차대전 이 끝날 때까지 일본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중심세력이었다.

35) 일본의 유명한 역사소설가 시바(司馬遼太郎)는 이 마을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행하여 소설로서 발표하였다. 司馬遼太郎, 『故郷忘れがたく候』(文藝春秋, 1978), pp. 3-70.

36) 가고시마현 사쓰마야끼의 심수관 뿐만 아니라 후쿠오카현의 高取窯의 高取八山 일가와 사가현의 有田窯의 시조 李參平 등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에도 일본의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도자기 宗家は 모두 예외 없이 임란 때의 조선 도공의 후예인 것이다.

전의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일본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일본은 왜란 이전에 인쇄술에 필요한 활자, 제반기구 및 기술을 얻기 위하여 조선에 사신을 보낸 바 있으며, 히데요시와 이에야스가 특히 일본에서의 활자인쇄 실현에 정열이 컸음은 유념할 가치가 있다.<sup>38)</sup>

에도문화의 큰 특징의 하나로서 활판인쇄에 의한 출판문화를 들 수 있다. 이 때에 책의 출판은 영리사업으로 발전하였으며, 1719년 통신사의 제술관 신유한은 “대판에 쌓인 서적이 천하의 장관”<sup>39)</sup>이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할 정도가 되었다. 이 또한 도자기와 마찬가지로 에도시대의 문화 및 산업혁명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 큐슈 지역의 제지산업도 임란의 피랍자 조선인 형제 도경(道慶)과 경춘(慶春)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되었음이 일본측 기록인 『九州の製紙業』, 『熊本縣史』 등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조선의 제지기술이 일본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sup>40)</sup> 1598년 가토(加藤清正)에 의해 붙잡혀온 두 형제는 구마모토현 玉東町の 浦田谷에 정착하여 이곳에다 새로운 종이뜨기 기술을 보급하여 가난에 찌들었던 이 마을이 새로운 제지산업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하여 눈부신 경제부흥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일본의 제지사에는 도경이 만든 종이가 ‘浦田紙’라는 고유명으로 남아있다. 한편 이를 전해들은 이웃 川原谷 마을에서는 동생 경춘을 초빙할 것을 간절히 바랬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지금도 남아있는 ‘경춘을 기다리는 비’를 세우게 되었다. 지금도 두 형제의 묘비가 남아있고 형제의 은혜를 기리는 제사가 해마다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川原谷 사람들은 12월 7일에 경춘제를 지내고 있다. 두 형제가 전해준 제지기술이 이 지역에 가져온 경제적, 문화적 기여를 상상할 수 있겠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선봉장으로 악명을 떨친 가토는 그러나 두 형제를 크게 우대해서 이들에게 토지를 주고 칼을 차도록 허용했다. 즉 이들은 사농공상의 엄격한 위계질서 속의 일본사회에서 사족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상대적인 우월성과 동시에 조선이 지니고 있던 높은 기술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과연 임진왜란 이전의 일본에는 조선에 견줄만한 것이 문화의 분야에서 있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총포와 기계시계라는 기계기술의 분야는 예외로서 뒤에 언급될 것이다.

37) 예로서 川瀬一馬, 『古活字版之研究』(安田文庫, 1937) 등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동아일보』 1992년 6월 11일자 참조.

38) 庄司淺水, 『印刷文化史』(印刷學會出版部, 1973), p. 67.

39) 『해유록』 11월 4일자 일기.

40) 이들 두 형제와 제지기술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92년 6월 23일의 특집 “壬亂 400년” 참조.

### 3. 조선통신사에 의한 조선문화의 일본 전래<sup>41)</sup>

임란 이후의 일본 도래 조선인과 함께 향후 200여년 동안 이루어진 일본으로의 조선통신사행 또한 일본의 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통신사행은 전부 12회로 평균 450명의 대규모였으며, 체재 기간은 약 10개월이었다. 비록 일본이 수많은 포로와 문화재를 약탈하여 그들의 문화향상의 절호의 기회로 삼았지만 우수한 조선문화를 그리 단시일 내에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요구, 협박, 회유를 통해 대규모적인 조선통신사의 파견을 조선에 요구하였던 것이다.<sup>42)</sup> 이를 통해서 그들은 또 다시 선진 조선문화를 섭취하였던 것이다. 일본측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데에는 막부가 그의 권위를 국내의 다이묘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정치적 요소도 물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조선사절의 일본방문 그 자체가 막부의 권위 세우기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조선이 아직도 일본에 비해서는, 비록 전쟁에는 패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앞선 나라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절이 에도에 도착하면 에도막부의 文教를 총괄하는 大學頭를 대대로 역임한 하야시 가문의 사람들이 문안을 왔으며, 또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조선의 통신사절이 지나가는 여로에는 일본 각지로부터 지식인이 모여들어서 조선 식자와의 면담을 청하였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한학자는 漢詩의 창수를 부탁하였고, 유학자는 유교에 대한 갖가지 질문을 들이대며 배웠으며,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면담을 하며 배웠다. 이 결과로 에도시대 일본의 식자들은 저서를 내면 조선 선비의 서문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통신사행에는 반드시 良醫를 일본측이 요청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부탁했다.

문화 전파의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선 일본이 1684년에 만든 역법 貞享曆은 1643년의 통신사행 박안기(朴安期)에게서 크게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sup>43)</sup> 조선의 1442년의 『七政算』 内外篇에 비해 무려 240년이나 뒤진 후에 이에 필적하는 일본의 독자적인 역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의사들은 면담의 결과를 담은 및 의서로서 출판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기타오(北尾春圃)는 1711년 측斗文을 숙사로 찾아가서 문답하여 『桑韓醫談』을 저술했는데, 실은 이같은 문답집이 10여종이나 있다. 에도 막부의 유일한 공식 외교국이었던 조선의 사신들과 일본의 지식인들간의 지적 교류

41) 조선 통신사행에 대한 일본인의 열광적인 관심과 그 결과로 나타난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저서와 논문이 나오고 있다. 中村榮孝 외, 『朝鮮通信使』(東湖書館, 1982); 김의환, 『朝鮮通信使의 발자취』(정음문화사, 1985); 손승철 편, 『近世韓日關係史』(강원대출판부, 1987); 신성순·이근성, 『조선통신사』(중앙일보사, 1994) 등을 들 수 있다.

42) 이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예로서 三宅英利(김세민 外 畝김), 앞의 책, 17-38쪽을 참조.

43) 박성래, 『한국인의 과학정신』(평민사, 1993), 41-47쪽.

의 방식을 보면, 동양 전통문화의 으뜸인 한시의 창수가 주를 이루었다. 이같은 조선학자와의 교류에 자극받아 일본에서의 한문학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져 갔다.

#### 4.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과 조선·일본

##### 1) 일본의 서양 과학기술 도입

일본에서 첼포의 전래는 서양 과학기술 도입의 획기적 성과의 전조이다. 이는 1543년의 일로서, 이것이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과 조선 침략으로 이어진다. 포르투갈인이 다네시마(種子島)에 첼포와 그의 제작법과 화약제조법을 전하자마자, 그것은 3년 내에 戰國시대에 있던 일본 각지로 널리 퍼졌다. 일본 각지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그 신속함은 당시 포르투갈 여행자도 놀랄 정도였으니, 전래 후 겨우 13년인 1556년에는 전국에 30만정의 첼포가 있었다고 한다. 개량도 급속히 이루어져서 서양제품에 전혀 손색이 없었으며, 일본인의 체형에 맞게 변형되었다.<sup>44)</sup> 첼포를 위시한 무기기술에서 일본이 뛰어났음은 일찍이 조선의 실학자 이수광(1563-1628)이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자명종이 있으며 또 일본의 조총은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sup>45)</sup> 이것은 모범적인 예로서, 이같이 서구의 기술이 급속도로 일본에 전파되고 소화되어 갔던 것이다.

과학병기인 첼포의 보급은 弓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였고 그래서 전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완전히 첼포대를 장비한 영주는 소수의 다이묘에 불과하였으니, 그의 막대한 비용이 원인이었다. 이로부터 군웅의 도태작용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결과로 노부나가(織田信長), 히데요시, 이에야스 등에 의한 국내 통일의 기운이 조성되었다. 유럽에서 나타난 현상, 즉 봉건제의 몰락과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출현과 같은 것이 일본에도 나타난 것이다.

이같이 일본은 16세기 후반부터 동양삼국 중에서 가장 앞서서 서양의 새로운 문물 및 과학기술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서양인이 대거 일본을 내왕하였다. 나가사끼(長崎) 등의 지역에서는 서양인의 빈번한 내왕과 함께 활발한 무역이 전개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이 일본에 상주하면서 포교와 함께 그 수단으로 각급 학교를 세웠다. 이로써 일본은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과 과학기술의 수용에서 조선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44) 杉本勳編, 『科學史』(山川出版社, 1967), p. 129.

45) 이수광, 『芝峯類說』服用部, 「器用」, 「金寶」.

일본이 이 때에 이룩한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과 내재화는 눈부신 것이었다. 특히 무기 및 군사 기술에서 일본은 이미 유럽제국에 그리 뒤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sup>46)</sup> 필자는 여기서 당시부터 드러난 조선의 열등한 무기 및 군사기술력이 임란의 타격과 함께 급기야 20세기초의 망국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

## 2) 조선의 서양 과학기술 도입

조선에는 서양의 선교사도 상인도 왕래하지 않았다. 조선은 주로 중국을 통한 간접 접촉에 의해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게 되었다.<sup>47)</sup>

아시아제국의 근대화에서 서양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박성래는, 조선이 근대 과학기술 도입에서 뒤떨어진 원인에 대해 그것은 조선이 중국과의 간접 접촉만을 통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 교수는 한중일의 서구과학 수용을 16세기부터 비교 고찰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300년간에 걸쳐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격차가 생겨났고 이것이 비극의 주요 요인이라 논파하였다. 그러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왔으나 조선에는 오지 않았던 것이 치명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한국사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sup>48)</sup> 그러나 이기백 교수는, 필리핀 등의 동남아제국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나라들에는 일본보다 이른 시기에 서양인과 서양의 근대문명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일본보다 서구적 근대화에 뒤졌다고 하면서 박 교수의 주장을 비판했다.<sup>49)</sup>

필자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는 서구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갖추어야 할 '문화적 잠재력'이란 개념을 개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동남아제국은 일본이 갖추었던 스스로의 문화적 능력, 다시 말해서 서구문화에 대등하게 비견되는 'counterpart'로서의 스스로의 학문, 사상, 과학, 기술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서구화가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동남아제국은 앞선 서양인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서구문명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없었다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46) 에도시대 일본의 근대서양 기술습득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黒岩俊郎, 『日本技術論』(東洋經濟新聞社, 1976), pp. 19-52; 杉本勳 編, 『科學史』(山川出版社, 1967), pp. 128-140등이 있다.

47) 예로서 박성래, “한중일의 서양과학 수용”,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권(1981), 85-92쪽 참조.

48) 박성래, “조선시대 과학사 어떻게 볼 것인가”, 『韓國史 市民講座』 제16집(일조각, 1995), 145-166쪽.

49) 같은 책, iv쪽.

### 3) 한일간의 서양 과학기술 교류

17세기와 18세기에 걸친 200년 동안 양국간에 우호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선은 일본이 새로이 섭취한 서양의 과학기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은 일본의 앞선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약간의 예외로서 일본으로부터 기계시계가 무역품으로 조선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sup>50)</sup> 이에 반해 철판의 경우는 밀무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난다.<sup>51)</sup> 밀무역에서 철판이 적발되었다는 기록은 조선이 철판의 수입을 엄금하였다는 말로서, 이것이야말로 조선이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도입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전형적인 실례로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sup>52)</sup>

### 4) 기계시계를 예로 본 한일의 비교

기술사에서 기계시계의 중요성은 크다. 『동아일보』 1999년 2월 5일자에, 최고의 발명품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인터넷 대화방에서의 논쟁에서 시계가 거론되었다. ‘현대 산업사회의 열쇠는 증기기관이 아니라 시계’라는 주장마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초기의 시계제조공은 뛰어난 발명가였다. 방적기를 발명한 아크라이트(Arkwright)도 시계제조공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이 산업혁명에서 시계는 중심적 존재였다. 이와 연관해서 일본의 시계제작 능력을 보면 이미 16세기 중반에 서양의 것이 일본에 수입되고 16세기말이나 17세기초에는 자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時計師라는 직업이 나타났으며 ‘와도계이’(和時計)라는 이름의 일본시계가 널리 유통되었다.<sup>53)</sup> 시계제작의 대량화와 상업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기계시계의 국산화·대량생산·상업화가 조선에서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새로운 문물에 대한 조선인의 의욕 부족인가, 경제적인 빈곤이 원인인가?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sup>54)</sup> 조선인은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송이영의 혼천시계와 같은 뛰어난 걸작을 17세기 후반에 남기는 우수성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근대서양의 과학기술을 국산화 및 내재

50) 三宅英利(김세민 外 옮김), 앞의 책, 160쪽.

51) 같은 책, 162쪽.

52) 부산의 왜관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도 과학사적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바, 무역의 품목에서 양국간의 과학기술 교류의 내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53) 전상운,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월간시계사, 1994), 97-100쪽.

54) 경제와 기술과의 관계가 직접적임은 잘 알려진 현상으로 이와 연관해서 볼 때 조선은 이미 17세기부터는 일본에 경제적으로 뒤지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18세기 말이 되면 한일간의 무역이 급속도로 쇠퇴하는데, 이것은 일본측에서 더 이상 대조선 무역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中村榮孝 외, 앞의 책, pp. 89-118.

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자명종이라 하겠다. ‘자명종의 원리로 만든 천문시계는 조선 뿐’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능력을 가진 조선에서 시계의 대량생산은 왜 일어나지 못했는가? 1774년 영조가 지은 시에는, ‘자명종이 왜국의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sup>55)</sup>, 조선에서는 비싸서 만들어 봐야 팔리지 않았던 것일까?

## 5. 한일간 위상의 역전과 그에 따른 인식 및 태도의 변화

17-18세기를 통하여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나타나는 양국간의 변화하는 상호인식 및 태도는 역사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과 조선이 변하지 않는 실체로 존재하면서 서로를 보는 눈만이 달라진 것이 아닌, 양자의 역량이 시간과 함께 변해감으로써 그 결과로 상호인식이 변한다는 것이다. 왜 일본은 17세기 100년을 통해서 그토록 조선과의 교린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왜 18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그 정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급기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통신사행이 단절되었는가?<sup>56)</sup> 이같은 양국의 교류 역사는 진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일찍이 하야시는 1634년 제4차 통신부사였던 김세렴에게 여러 가지를 물은 후 다음과 같이 말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섬나라에서 자라서 군자의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듯합니다.”<sup>57)</sup> 그러나 일본 식자들의 태도는 서서히 교만하여져서 급기야 18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그들 스스로가 조선과의 교류를 거부하게 된다.

18세기 초에 조선 학자의 눈에 비친 일본을 보면, 신유한(申維翰, 1681-?)은 1719년 통신사행의 제4인자인 製述官으로서 체험한 일본 기행문 『海遊錄』을 남겼던 바, 통신사의 기록 중 가장 역사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sup>58)</sup> 서문의 내용에 신유한이 장도에 오르기 전 선배를 방문하고 조언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 그 선배가 말하길 ‘통신사행의 숙소로 일본의 많은 문인들이 찾아올 것이나, 그들의 글만으로서 일본의 학문을 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찾아오지 않는 학자들 중에 학문이 뛰어난 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59)</sup> 이를 통해서 필자가 이해하는 18세기 초의 일본은 이미 17세기초의 ‘야만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앞서 흘러간 100여 년의

55) 남문현, 『한국의 물시계』 (건국대출판부, 1995), 262쪽.

56) 통신사행은 17세기에 7회, 18세기에 4회, 19세기 초에 1회로서 점점 빈도가 줄어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의 사행은 ‘易地聘禮’라 하여 대마도에서 간단한 접촉만이 있었을 뿐이다.

57) 金世謙, 『海槎錄』 丙子年 12월 13일條.

58) 역서로서 신유한(장상섭 역), 『海遊錄』 (정음사, 1979)이 있다.

59) 같은 책, 戊戌 정월 일자 일기.

기간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조선을 크게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서 17세기에 처음으로 인쇄술을 배웠던 에도정권의 문치정책은 처음에는 조선으로부터 탈취한 문적에 의거했다. 그러나 이미 17세기가 끝나는 무렵에는 조선보다 많은 저서를 자랑한다. 이같이 200년 동안 일본의 향상은 놀라운 것이다. 이 18세기초를 중심으로 그 앞과 뒤의 일본에 대한 조선인들의 평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즉 『海遊錄』을 위시한 여러 사료에 의해서, 17세기초부터 18세기말까지 200년을 통해서 서로를 보는 양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이 명백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보는 양국의 시각이 변해 가는 일례로서 조선 식자의 일본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따라가 보자.<sup>60)</sup> 조선인이 인식하기에 일본인과 일본은 17세기까지는 형편없었다.<sup>61)</sup> 일본인은 ‘牛羊’으로 표현되면서 夷狄視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글(한학)이 형편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니, 비록 무렵에서는 당했으나 학문과 문화를 배워주는 입장에서의 조선의 자존심은 매우 컸던 것이다. 또한 일본인에 대한 비하는 ‘拜禮를 모른다’거나 ‘존대말이 없다’는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어의 존대말이 우리말보다 더 많은 단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욱 철저한 배례가 행해지고 있음은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전해진 문화의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18세기의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이익(李瀾, 1682-1764)은 임란 이후 겨우 활자인쇄를 시작한 일본이 “典籍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등으로 말하면서, “인쇄문자는 자획이 정돈하여 조선보다 뛰어나다”고 하여 일본의 학문과 기술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4)는 “시문과 유학”이 성하고 “부국강병하다”며 이는 해외무역 때문이라고 하였다. 18세기말에는 “학문이 精明”, “재정력이 풍부” 등의 평가가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서 빈번히 나온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일본의 “文勝之效”를 말하며 안심하자고 하였고, 또 부국을 언급하면서 이는 일본이 선진 과학기술을 성공적으로 습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62)</sup>

## 6. 전통문화와 서양문물의 내재화

도꾸가와막부의 시조 이에야스가 글(한문)을 몰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일

60) 河宇鳳, 『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一志社, 1989) 참조.

61) 같은 책, 14-49쪽.

62) 이 3인의 견해에 대해서도 같은 책을 참조.

본에 한자문화가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18세기초의 쓰시마(對馬島) 島主도 글을 몰랐으며 이에 신유한이 그를 경멸하고 있음이 『해유록』에 생생히 나타난다.<sup>63)</sup> 그러나 일본이 명치유신을 전후해서 서구화의 필수적인 과제이었던 서양서적의 적극적인 번역을 이루어낸 것은 바로 성숙한 한자문화의 기반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근대화의 원동력은 ‘번역문화’이었다는 것은 최근 많은 일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sup>64)</sup> 번역은 단순한 베끼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적인 능력 및 언어학적인 바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전통문화의 잠재력이 없이는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자기 것으로 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 조선문화의 일본에의 진정한 기여가 있는 것이다. 동남아제국을 예로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서구인과 서구의 문물이 더욱 오랜 역사 속에서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서구화되지 못한 것은 서구문화를 내재화하는 데 필수적인 자기 문화의 바탕이 없었던 것이다.

일본은 수준 높은 한학에 의거해서, 서양과학을 이입하여 내재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인 학술용어의 일본어로의 번역에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유입에 발맞추어 일본은 무려 그들이 쓰는 과학용어의 66% 정도를 새로이 만들어내었던 것이다.<sup>65)</sup>

## 7. 결 론

一衣帶水の 관계로 불리는 한일간의 오랜 역사에서 17-18세기는 친선관계가 이어진 가장 우호적인 시기였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 두 나라간의 위상이 극적인 역전을 이루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15세기를 전후해서 독자적 문화의 완성을 보았던<sup>66)</sup> 조선은 임란 7년을 통해 빈사의 상태에 빠지는 바, 필자는 이 왜란의 타격을 조선의 그후에 이어지는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의 도입 실패와 함께 먼 훗날 조선의 식민지로의 전락의 시발점으로 본다.<sup>67)</sup>

그러나 임란은 일본에게는 문화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었다. 일본은 이로써 내전으로

63) 6월 30일자 일기.

64) 예로서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이산, 2000)를 참조.

65) 伊東俊太郎·村上陽一郎 共編, 『日本科學史の射程』, 講座科學史 4(培風館, 1989), p. 388.

66) 조선이 15세기를 전후하여 세계사적으로 보아 일류의 과학기술 보유국이었던 것은 국내의 과학사학계는 물론이고 해외의 학계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다.

67) 전상운도 일찍이 임진왜란의 영향을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의 전통의 단절로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상운, 『한국과학기술사』(정음사, 1975), 24쪽.

해가 뜨고 지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눈부신 문화적 약진을 거듭하여 동북아시아의 신생 문명국으로 떠오른다. 일본의 흥기는 그러나 조선의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전쟁의 결과로 조선문화의 진수가 일본으로 이식되었고 전쟁 후에 이어지는 조선통신사의 일본 파견은 일본이 조선의 문화를 완전히 섭취하는 과정이었다.

결국 200여년에 걸친 한일간의 문화교류는 일본만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 시기를 통해 한학과 유학을 바탕으로 한 당시 조선문화의 진수를 일본은 완전히 섭취하였다. 임란 도래자 및 조선통신사에 의한 일본 문화 및 과학기술에의 기여는 오로지 전통적인 동양의 사상 및 과학기술의 분야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문화—한학·유학·인쇄술·천문학·의학 등—는 일본이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 및 문물을 철저히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립시켜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진정한 서구화는 비로소 가능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인 것이다. 일본이 전통문화에서는 언제나 중국이나 조선에 비해 열등하였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서양문물의 열성적인 모방자가 됨으로써 근대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우수한 한문학의 능력과 함께 서양의 여러 과학기술에 비견될 수 있는 'counterpart'로서의 동양의 전통과학과 기술을 지니고 있었기에 일본은 비로소 서구의 문물을 성공적으로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전통 동양문화의 진수로서의 조선의 학문, 사상, 과학, 기술과 서양의 그것들은 거의 동시에 유입되고 있었다. 중국과 조선은 이미 스스로가 자부하는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바, 이것은 양국에게 서구의 새로운 과학기술문화를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으나 일본은 사정이 달랐다. 이것은 왜 일본이 조선과 중국에 비해서 서양의 문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배울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본은 막부말기까지 일본인의 해외이주를 금하는 엄격한 해외도항금지령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사쓰마번의 사무라이 15인이 목숨을 걸고 영국유학을 감행한 이야기가 있다.<sup>68)</sup> 서구문물과 제도에 대해 일본의 지식층이 진취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그런데 서구 문명의 내용 중에서도 일본인이 과학과 기술에 가장 관심을 보였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sup>69)</sup>

일본의 서구적 근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양 고래의 전통적인 문화 역량이 토양으로 존재해야만 했고 이것을 제공한 것이 조선이다. 제2의 중국 물결이라고 일본 학자들이 말하는 이 시기 일본의 문화적 대변혁은 바로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문화의 전래로 이루어진 것임은 지나칠

68) 犬塚孝明, 『薩摩藩英國留學生』, 中公新書 375(中央公論社, 1974).

69)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서로는 渡邊正雄, 『日本人と近代科學』, 岩波新書 952(岩波書店, 1976).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이 말하는 和魂洋才의 사상(조선에서 말하는 東道西器)과 일본의 근대화를 연결시켜 보자. 필자는 이 사상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시각의 필요성을 여기서 제기하고자 한다. 즉 일본은 이 사상을 이상적으로 실현하여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일본의 눈부신 근대화,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 및 문물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바로 조선문화의 일본 이식이 바탕이 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문화로서 화혼을 세웠고 서양의 과학기술로 양재를 얻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18세기 말-19세기 초를 경계로 무력과 경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전반에서도 조선을 앞섰던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영국의 외교관이었던 Ernest Moson Satow가 한일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 글의 주장에 대한 하나의 논거로 삼고자 한다. 그는 1862년부터 1883년까지 20년 이상 일본체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사쓰마의 나에시로가와(苗代川)를 방문하여 며칠간 머문 적도 있다. 당시 일본 주재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일본아시아협회'에서 1878년(명치 11년) "The Korean Potters in Satsuma"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sup>70)</sup> 이 글에는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한일간 위상의 역전과 임란으로 조선이 입게 된 치명적인 타격이 잘 함축되어 있다.

역사의 흐름은 때로 陽光 속에 떠들썩하고, 혹은 속으로 숨어 어둡게 침잠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찾아 이동해 간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비비꼬인 줄과도 같이 겉으로 나왔다 속으로 들어갔다 하며 변화한다. 그리하여 오늘의 승자는 내일의 패자가 되기도 하고 ...

가깝고도 먼 관계에 있는 일본과 조선의 사이도, 또 그 輪廻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조선은 우리들이 최근 알고 있는 조선보다도 훨씬 고도한 문화를 구가하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조선이 구태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또 기술적인 활용 면에서 이웃 나라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인 이유를 생각할 때, ... 16세기 일본인에 의한 커다란 파괴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70) 沈壽官, 『日本の燒物』② 薩摩(平凡社, 1975), pp. 151-152.